

# 모태펀드 21조원 출자... 44조원 벤처펀드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참여... AI·딥테크·지역·재도전 투자 대폭 확대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난 23일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하고, 총 2조 1천억 원을 출자해 약 4조 4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전략 산업과 지역 벤처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비수도권 투자 확대, 재도전 창업 지원, 회수시장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해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투자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지역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에 2,300억 원을 출자해 향후 5년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펀드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벤처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와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창업 초기 전용 펀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를 위한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M&A 및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P·문화기술·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4,900억 원을 출자해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하며, 해양수산부는 지방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출자사업에는 지역·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의무 비율을 강화하고, 초기 투자 실적이 우수한 운용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확대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출자 제안서는 오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운용사 선정은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ESG 공공·민간 협력 첫걸음

### 한국전기안전공사·한성대, ESG 경영 실천·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한성대학교와 손잡고 ESG 경영 실천과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22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삼관에서 한성대학교(총장 이창현)와 ESG 경영 실천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ESG 경영이 기업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ESG 정책 공조 체계 구축 △우수 ESG 성과 사례 공유 △에너지 신산업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교육 등이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 재활용 캠페인과 취약계층 안전 캠페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삼관에서 한성대학교와 ESG경영 실천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하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AI와 에너지 대전환이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 화두가 된 시대"라며 "창의적인 청년 인재들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을 비롯한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 전주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추진

전주상공회의소가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6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간 근속 시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매년 8천 명 이상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참여 기업과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부터 장려금 신청,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생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원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설명회를 연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2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들이 내년도 지원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 전북지원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핵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으로는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이수진 박사가 나서 '2026년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배부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13개 분야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천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학습·집단지성이 은행 경쟁력"

### 박춘원 전북은행장, 취임 후 직원들과 첫 소통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직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북은행의 미래 방향과 조직 경쟁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박 은행장은 최근 열린 '직원과의 소통' 시간에서 JB우리카피탈 대표 시절의 경영 경험과 조직 운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박 은행장은 "제 인생은 성장의 연속이라기보다 변화의 연속이었다"며 끊임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모험심과 호기심, 조직과 사회에 대한 애정,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을 꼽았다. 공대 진학부터 회계사, 장당 활동, 유학, 컨설턴트, 금융그룹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모험심이었다"고 말했다.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전북은행의 현재 위치와 향후 과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오갔다.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학습 능력'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특정 업무나 기술은 언젠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역량 역시 조직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집단지성이 작동할 때 더 나은 전략과 실행력이 나오고, 그것이 곧 회사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은행장은 "입기를 마치고 떠날 때 직원들이 '박춘원 덕분에 성장했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중기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 안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전주권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우석대학교·희망전북POST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해 대학생과 일반 예비

창업자도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수출 지원, 연구개발 등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기술보호전문관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현장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 육십령터널 차량 화재, 운전자 침착한 대응으로 초기 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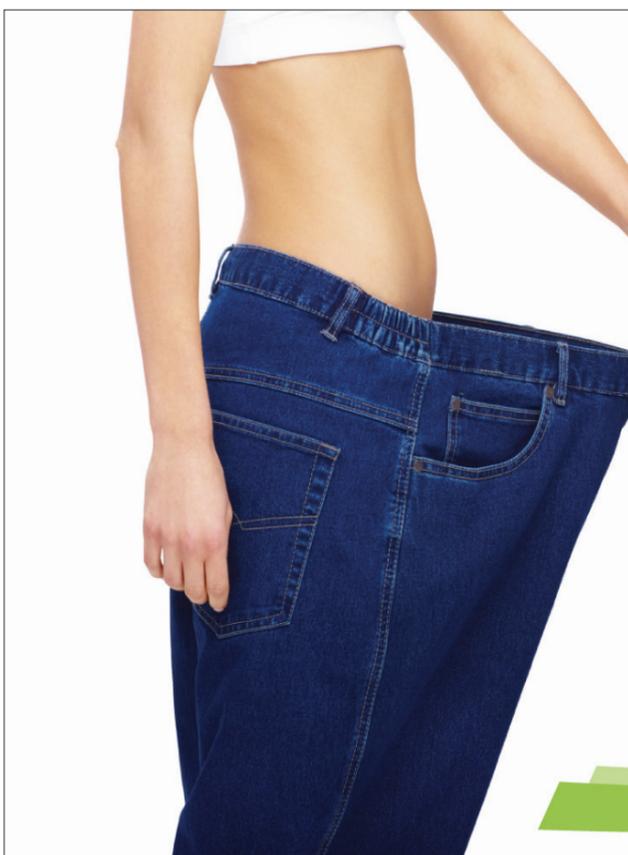
통영대전고속도로 육십령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운전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육십령터널(대전 방향) 129.3km 지점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

고로 승용차 전면부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화재를 인지한 승용차 운전자는 즉시 화물차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두 운전자는 함께 터널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오상근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